

산란계 사양관리 (II)

김 지 태
(본지 편집위원 · 광명농장)

4. 육성관리 (9~22 주령)

육성시기는 산란계의 자질을 갖추는 시기이고 병아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외부에 대한 저항력도 많이 향상되므로 사육자가 방심하기 쉬운 때이다. 조그만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산란의 능력을 저하시키고 질병을 유발시킬 염려가 있으니 철저한 관찰과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시기이다.

1) 사료관리

① 이제까지는 사료를 무제한 급여 하 하였으나 육성 시기에는 사료 급여를 하기전에 발육 상태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주 체중을 측정(최소한 2주 간격은 필히 체중 측정을 한다.)하여 표준 체중과 대조한 뒤 사료량을 결정한다.

② 처음 사료 급여는 사양 표준표에 의한 사료 급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최근에 이르러서는 산란계 육성시 사료를 제한 하는 경우가 많다. 사료 급여량의 설정을 표준 체중 이하가 되도록 사료량을 설정

정하여 급여하면 나중에 표준 체중에 가깝게 되는 동시 제한 급여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 체중의 편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육성이 잘 된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여 표준 체중보다 이상이 되든가 이하가 되더라도 전체군의 체중이 고르게 육성되어야만 한다. 가능한 한 표준보다 체중이 증가 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육성시 제한하다 보면 부족되기 쉬운 비타민과 무기물의 보충을 주기적으로 투여하도록 한다.

⑤ 10주령까지는 중추 사료를 급여하고 11주령에서 22주령까지는 대추 사료를 급여한다. 대추 사료는 단백질이 12~13% 대사 에너지 2640KCal/kg의 영향이 되도록하여 급여한다.

⑥ 사료 변경시 2주일 동안 점차적으로 변경하여 스트레스를 예방한다.

⑦ 체중 측정은 각 주령의 마지막날 공복시에 전체 계군수의 10~20%에 해당되는 수수의 체중을 측정하여 발육 상태를 확인한다.

⑧ 사양표준표 例(H품종)

주 령	육 성 율	표 준 체 중	사 료 량	음 수 량
10	98.7%	830g	72g	110ℓ
12	98.3	960	84	120
14	98.0	1,080	90	135
16	97.7	1,180	95	145
18	97.5	1,280	99	155
20	97.2	1,380	102	165
22	97.0	1,480	106	180

2) 사양관리

① 온도는 15-18℃, 습도는 60% 기준 하여 관리하고 항상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도록 환기에 주의한다.

② 밀집, 밀사하는 관리는 절대로 하지 말것.

③ 사료 및 환경을 갑자기 변경시키지 않도록 한다.

④ 산란 케이지로 이동은 보편적으로 60~70일에 이동시키고 있으나 시설이 가능하다면 120일까지 평사 또는 대추용 케이지에 육성시킨 후에 이동시키는 것이 산란 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다.

⑤ 120~130일이 되면 닭의 뼈가 갑자기 발갛게 자라기 시작하고 산란계의 외모를 갖추게 되는데 이때에 닭 자체의 생리적 변화로 인하여 상당히 예민한 상태이므로 관리를 조심성있게 하며 불필요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⑥ 이 시기에 산란이 조산, 만산의 여부를 결정짓게 한다. 산란을 너무 빠르게 할 것 같으면 사료 제한을 연장시키고 산란이 늦어질 것 같으면 사료량을 증가시켜 산란할 수 있도록 하여 160~170일령을 기준하여 50% 산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방역관리

① 예방접종

가) 뉴캐슬 예방 : 16주령시 ND 사독 (CC접종)

나) 계두예방 : 16~17주령시 제2차 접종으로 2침 날개막 천자접종.

② 약품투여

가) 콕시듐 예방 : 12주령시 5일간 투여.

나) C. R. D 예방 (만성호흡기병) : 8주, 12주, 16주, 20주 등 4주 간격으로 예방제 투여

다) 내부기생충구충 : 12주령 1회투여

라) 비타민 및 영양제투여 : 1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투여하도록 한다.

4) 특수관리

① 부리자르기 (Debeaking)

가) 부리 자르는 목적

ㄱ) 食羽性과 肛門 찌는 성질을 방지.

ㄴ) 사료의 분산을 막고 골라 먹는 버릇을 없앨 수 있으므로 사료의 손실이 적다.

ㄷ) 성질을 온순하게 하여 서로 싸우지 않게 하여 체력 소모를 방지한다.

ㄹ) 알을 깨어먹는 성질을 없앤다.

나) 부리 자르는 시기와 방법.

부리 자르는 것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나 필히 부리 자르는 것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10월에서 2월에 부화된 병아리는 해의 길이가 길어져 가는 환경에서 육성되기 때문에 쪼는 성질을 유발시키고 성성숙 부진에 의한 탈항의 위험도가 높으므로 꼭 실시하도록 한다.

가) 2~3주령 사이에 부리 절단기로 (Debeaker) 실시하는 것이 좋고 12주령시에 다시 부리가 잘린 상태를 점검하여 다듬어 주도록 한다.

나) 부리 자르는 방법은 윗부리를 훑, 아래부리를 훑 잘라주는 동시에 부리의 생장점이 좌우에 있으므로 자르는 동시에 좌우양 쪽으로 약간 지저주도록 한다.



알맞게 된 디비킹 성계시의 이상적인 부리모양

리) 부리 자른 후 주의사항

○ 잘린 부리에 딱딱한 모이통 바닥에 부딪쳐서 출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과 사료를 충분히 준다.

○ 비타민제와 항생제를 3~5일간 투여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킨다.

○ 더운 날씨에는 출혈과 스트레스가 심하므로 서늘한 아침에 실시하도록 한다.

○ 부리 자를때 정성껏 실시하여 병아리가 후유증이 없도록 한다.

② 점등관리

가) 초생추를 입추시킨 후 2주령까지는 24시간 점등하여 물과 사료의 위치를 찾게 하는 동시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점등 광도는 육성 기간에는 전구 30W 이하를 사용하고 산란초(21~22주령시)에는 60W 전구를 사용한다.

다) 산란초의 광도는 5Lux 정도이며 이것은 18~20m²당 40W 백열구를 갖을 썬위 1.8~2.0m 높이에 1등켜는 정도의 광도이다 (1坪에 9W 꼴)

라) 점등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시각에 점등하는 것이다. 10분이상 불규칙적으로 점등해도 광감각의 영향을 받아 산란에 지장을 초래한다.

마) 전구는 백열구를 사용하고 규칙적으로 배열하고 끊어진 것은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바) 케이지 양쪽 복도에 서로 엇갈리도록 배열한다.

사) 1~9월에 입식된 계군은 19주령까지 자연 광선으로 하고 20주령 이후부터 매주 15분 증가시켜 점등하여 17시간을 최대 점등으로 한정시킨다.

아) 10월부터 12월에 입식된 계군은 그 계군이 20주령에 달할때까지의 일조시간을 기초로 하여 관리하고 21주령 부터 점등 실시한다.

자) 산란이 시작한 후에는 한번 증가시킨 점등 시간을 절대로 줄여서는 안된다. 산란율이 하락하고 환우계(털갈이)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차) 새벽 점등이 유리하다. 새벽 점등은 점등 효과를 좋게하고 더운 여름에는 사료 섭취량을 증가시킨다.

타) 전등은 일주일 1회이상 닦아 주어

야 점등 효과가 있다.

③ 불량계 도태

가) 중추, 대추의 도태

발육이 좋지 못한 닭은 과감하게 도태 하여야 한다. 불량한 병아리를 그대로 두면 결국 폐사 하거나 질병을 전파 시키는 매개체 요인이 되기도 한다. 불량계가 나타나면 즉시 격리 수용시키되 장래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즉시 도태 시키므로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한다.

㉠ 활력이 없고 약한 것.

㉡ 날개를 늘어 뜨리고 변의 색깔이 이상한 것.

㉢ 평균 체중에 훨씬 미달인 것을 도태하도록 한다.

나) 햇닭의 도태

20~21주령이 되면 산란할 수 있는 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산란 준비가 안된 닭은 미리 도태 하여 사료의 손실을 막도록 하여야 한다.

㉣ 체중이 작고 불량한 닭은 체중이 비슷한 것 끼리 수용 하거나 도태한다.

㉤ 눈에 활기가 없고 벼이 잘 발달되지 않은 것.

㉥ 피부와 정강이에 윤기가 없고 거칠게 보이는 것은 도태한다.

㉦ 날개와 깃털이 거칠고 윤기가 없는 것은 도태한다.

다) 불량계 도태의 이점(利點)

㉧ 사료비가 절약 된다.

㉨ 전염병과 기타 질병의 전염을 미연에 방지 하는 동시에 감소 시킨다.

㉩ 균일하게 닭을 기를 수 있다.

㉪ 노력과 방역 위생비가 적게 든다.

㉫ 경영면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운영을 할 수 있다.

광주부화장



바브콧

B-300V



아바에이카

사무실

전남 광주시 동구 양림동 8-15번지

전화 ⑧ 1107-2198